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국제금융기관 대상 '부산 글로벌 금융허브 설명회' 개최

박성준 mediapark@ekn.kr

최종 기사입력 2024-03-04 13:39:20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오는 11일 런던 소재 컨설팅 기관인 Z/Yen사와 함께 국제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부산금융중심지의 인지도 및 위상을 제고하고자 부산금융중심지를 소개하는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Z/Yen사는 런던 소재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1994년부터 금융·기술 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런던금융특구 소재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 또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국제녹색금융지수(GGFI, Global Green Finance Index)를 발표하는 등 세계 주요 국제 금융도시들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위상 강화와 국제금융기관 유치에 위해 부산시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참여하며, 세계 금융중심지 전문가 및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부산의 디지털 금융 육성 계획(D-Valley 인프라 구축, 디지털 자산거래소 등)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내용은 Z/Yen CEO 마이크 워들(Mike Warde)의 격려사에 이어 △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계획(기획발전특구·특별법 발의) △ 부산 디지털 금융 육성(디지털자산거래소·D-valley 설립) △ 부산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해양금융 육성 △ 해외 금융기업의 부산진출 혜택 △ 금융감독원의 금융중심지 지원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금융 육성에 대한 내용으로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인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BDX) 설립과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원자재·귀금속 등 실물자산 거래생태계 조성, 그리고 2025년 준공을 앞둔 D-Valley(디지털 밸리)인프라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 진행과 함께 오는 3월에는 Z/Yen Community Newsletter에서 '부산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를 조명하여 '부산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본 행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부산금융중심지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및 위상을 강화하고 부산의 디지털금융 생태계 및 해외 금융기업의 부산진출 혜택을 설명함으로써 해외 금융기관 유치와 향후 글로벌 금융기관 및 금융전문가들과의 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은 “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글로벌 금융기관 및 금융중심지 전문가들에게 디지털·지속가능·해양금융허브로서 부산금융중심지의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3월 19일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을 맞이하여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며, 심포지엄 일정은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mediapark@ekn.kr)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 >

프린트

취소